

김일성종합대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 연구

김가람 북경대학교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 객원교수

-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II. 선행 연구
-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 IV. 연구 결과
 - 1. 파견 경로 및 동기
 - 2. 교육 환경
 - 3. 교육과정
 - 4. 교재 및 교수법
 - 5. 교외 활동 및 만족도
- V. 결론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조선어교육¹⁾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조선어교육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어 교육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후의 한국어교육을 고려할 때, 문법이나 어휘의 통일과

1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북한의 한국어교육’, ‘북한의 조선어교육’, ‘류학생을 위한 조선어교육’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초창기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 역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상황을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역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경우 ‘조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어교육’이라는 용어도 특별한 수식어 없이 단독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조선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의 차이를 나타내야 하는 지점에서는 북한의 ‘조선어교육’, 남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어(조선어)교육의 통일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김인규, 2012: 284) 조선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조선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구체적인 교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포함한 공식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접근의 제한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 수집한 교재를 대상으로 한 교재 분석과 조선어교육을 받고 돌아온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 사례를 재구한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조선어교육 연구는 마치 조선어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처럼 퍼즐 조각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분야의 연구가 축적²되어 이제는 서서히 전체 모양을 완성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선어교육이 실시되는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퍼즐의 한 조각을 채우고자 한다. 북한의 조선어교육은 김일성종합대와 김형직사범대 두 곳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남옥(2011)에서는 김형직사범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어교육의 사례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학교인 김일성종합대의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김일성종합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선어교육의 양상을 확인한다면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선어교육의 전체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조선어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II.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조선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전의 연구는 국어학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어학을 기술하거나 남북한의 문법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³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어교육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개념이 등장하면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재 분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을 통해 조선어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김중섭·조현용(1996)의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선어교육 연구의 효시(嚆矢)이다. 강독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조선문화어 강독(유학생용) 1, 2’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교재 분석 외에도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어교육의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와 한국어교육과의 비교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강독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독해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추론하였다. 이후 김중섭·조현용(1998), 김중섭(2000), 이관식(2005)에서는 강독 교재뿐만 아니라, 회화 교재, 종합 교재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조선어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교재 분석 중심의 연구 경향성은 강남옥(2011)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조선어교육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법을 통해 조선어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교재 분석을 통해 막연하게 추측만 하던 조선어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김형직사범대로 조선어교육 연수 과정을 다녀온 2명의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견 경로 및 동기에서부터 교육 환경, 교수법, 평가 등 다양한 부분

3 북한의 언어학에 관한 연구 경향은 최호철(1996)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에 걸쳐 조선어교육이 구체적인 면면을 재구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김인규(2012)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도 조선어 회화 교재 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조선어교육의 경험이 있는 3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재 분석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실제적인 교육 방법과 교수법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옥(2012)에서는 김일성종합대와 김형직사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급 회화 교재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인 교재 분석의 충위를 넘어서 제작 목적과 교수요목, 단원 구성과 전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충위의 비교, 대조를 통해 교재에 담긴 교육관의 차이를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의 조선어교육 역시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조선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연구 경향성 역시 교재 분석이라는 획일화된 방법에서 벗어나 직접 조선어교육의 경험이 있는 제보자를 섭외하여 보다 구체적인 교육의 모습을 밝히는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재 조선어교육의 다양한 측면의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교재 분석에 대한 논의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비교 연구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는 김형직사범대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선어교육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육 기관인 김일성종합대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 또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선어교육 연수 과정

을 재구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와 교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 현황 및 운영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참여 관찰, 설문 조사,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분석 등의 방법이 통합적으로 이용⁴된다. 이러한 방법은 구체적인 교육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수의 교사 및 학습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어교육의 경우는 실제적인 교수-학습 상황을 연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며, 교육 현황과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조선어 연수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 사례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교재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대상자는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조선어교육 연수 과정에 참가한 두 명의 중국 학생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정보

제보자	출신 학교	연수 기간	현재 신분
A	북경A대 한국어과	2010. 4. 8~10. 20	북경B대 대학원생
B	북경A대 한국어과	2012. 5. 4~11. 2	북경A대 3학년

이상 두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최초의 연구 단계에서는 김일성종합대에서 연수를 마친 다수의 참가자들과 접촉을 했으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두 사람만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충분한 경우 인터

4 박재의·강현석(2009)에서는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운영 보고서 분석과 함께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통해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김우형(2011)에서는 수업 내용 분석과 설문지법을 사용해서 영어 단기 몰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고, 김영미·황정희(2012)에서는 방과 후 영어 교실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하여 참여 관찰과 심층 인터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뷰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가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 정확한 인터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연구자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고, 북한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한국어로 응답할 수 있는 한국어 구사자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제보자 A는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여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국어 학습 경력이 5년째이다. 학습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번역 대회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원으로 한국어 실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다. 제보자 B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부 3학년 학생으로 학습 기간은 3년이다. 북한에서 조선어 연수를 받고 왔으며,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 토론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 두 학생 모두 한국어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연구자와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둘째,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만을 선발했다. 김형직사범대의 조선어 연수 과정을 연구한 강남옥(2011)에서 제보자들은 연구 당시보다 10여 년 이전인 2002년에 북한에서 공부한 제보자들이다. 이러한 경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아무리 두 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교차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의 기억을 정확하게 떠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북한에 다녀온 참여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보자의 기억과 북한에서 가져온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제보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제보자로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제보자 A는 2010년에 북한에 다녀왔고, 제보자 B는 2012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교재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용했던 수업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명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전 인터뷰는 참여 의사를 밝힌 제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한국어 능력과 북한에서 체류 기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질문을 통해 제보

표 2. 인터뷰 일정 및 진행 과정

제보자	사전 인터뷰	자료 요청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A	2014. 3. 29	2014. 3. 30~4. 8	2014. 4. 9	2014. 5. 28
B	2014. 4. 16	2014. 4. 17~5. 16	2014. 5. 17	2014. 6. 27

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명의 제보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해 질문지를 발송했고, 조선어 연수 과정 당시 사용했던 교재나 관련 자료들을 1차 인터뷰에 준비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실행된 실제 인터뷰는 녹음이 가능한 조용한 연구실에서 연구자와 제보자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1차 때는 사전에 발송한 질문지에 대한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가 이루어졌고, 2차 때는 1차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2차 인터뷰 때는 다른 제보자의 1차 인터뷰 결과를 근거로 차이를 보이는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질문 외에 제보자가 북한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점이나 조선어 연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와 더불어 이들이 북한에서 가져온 교과서와 그 밖의 수업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IV. 연구 결과

1. 파견 경로 및 동기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국 학생들은 매년 북한으로 ‘조선어 연수’⁵ 과정

5 중국 학생들이 북한에서 조선어를 공부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는 김인규(2011)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참가 학생들은 정식

에 참가할 수 있다. 매년 모집 시기와 인원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60명 내외⁶가 가며 대부분 4월이나 5월 초에 가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중국으로 돌아온다. 강남옥(2011)에서는 2000년 대 초반 북한에서 공부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3월에 시작해서 1월 초에 끝나는 11개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강남옥, 2011: 306).

중국에서 조선어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북경이나 각 지역의 명문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로서 중국 정부의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國家留學基金管理委員會)’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조선어 연수에 참여한다. 먼저 정부 기관에서 우수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할당된 인원에게 맞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가 학생이 결정된다. 북한행이 결정된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적이나 소속된 학교의 위상 등에 따라 김일성종합대와 김형직사범대 두 곳으로 배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명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김일성종합대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에 조선어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북경대, 북경외대, 천진외대, 연변대, 북경제2외대, 전매대, 산둥대 등 북경이나 전통적으로 한국어과가 강한 지역의 대학이었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이들 대학 외에도 서안외대, 상해외대, 사천외대, 광둥외대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명칭 대신 조선에 간다는 것으로 통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김인규(2011)와 마찬가지로 ‘조선어 연수 과정’이라 지칭하겠다.

- 6 강남옥(2012: 11)에서는 아시아신문기자협회에서 발간한 ‘The AsiaN’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매년 100여 명의 중국인 학생들이 북한에 조선어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2명의 제보자 모두 60명이라는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학교별 인원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100명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 틀린 것인지, 2011년에만 특별히 100명이 갔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표 3. 조선어 연수 참가 대학 현황

2010년	김일성종합대	북경대, 북경외대, 천진외대, 연변대
	김형직사범대	북경제2외대, 전매대, 산동대
2012년	김일성종합대	북경어언대, 북경외대, 북경제2외대, 서안외대, 상해외대, 연변대
	김형직사범대	광둥외대, 사천외대, 대련외대

이러한 다양화 추세는 2013년부터 더욱 거세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결과 2013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조선어 연수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선발 방식도 정부에서 일부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 전체로 확장되었다고 한다.⁷ 조선어 연수 과정에 참가하는 학교가 다양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한류 열풍으로 인해 남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중국 최고 명문대학인 북경대의 경우도 2011년 이후 단 한 명도 조선어 연수 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비단 북경대뿐만 아니라 명문 대학의 우수한 중국 학생들이 북한보다는 남한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북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부 학교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개방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어교육 연수 과정은 정부에서 학생 선발은 물론 파견 및 연수 과정의 일체 비용을 지불한다. 따라서 자비로 연수를 해야 하는 한국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1학년 때부터 바로 연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실력을 키우고 싶어 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남한에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하였다.

7 이 내용은 현재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선배에게 이야기해 준 것으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귀국한 후에 정확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보자 A: 한국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을 때. 그런데 조선은 이때가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도 조선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저한테 갔다 오라고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제보자 B: 한국은 2학년 때부터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데, 조선은 1학년 때 바로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빨리 한국어를 잘 하고 싶어서 조선에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돈도 주니까 더 좋아요. 비행기 표도 공짜고 기숙사도 공짜예요. 그리고 생활비로 한 달에 250달러씩 줬어요. 또 조선에 갔다 온 3학년 선배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줘서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북한행을 선택한 것은 학습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선배 혹은 교수의 추천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교수나 선배들에게 만족도를 들은 이후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이 동일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조선어 연수 인원을 배출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보인다. 두 명의 제보자 역시 북경 시내의 A대학교 출신인데, 이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선어 연수 과정에 재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2. 교육 환경

김일성종합대 연수 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유학생 전용 기숙사에서 지낸다. 이 기숙사는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부터는 모두 유학생 전용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학생 전용 기숙사지만 교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의실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기숙사에는 중국인 유학생 외에도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온 유학생들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들과 교류는 거의 없었다. 이 밖에 생활 도우미 형태로 북한 대학생들이 5~6명 정도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관리하는 사감 역

할의 교수급 인원도 1명이 있다. 중국 학생들 가운데 원하는 학생은 북한 학생과 룸메이트를 할 수도 있었는데 2012년에 조선어 연수 과정에 참가한 학생은 북한 대학생과 같은 방을 사용했다.

제보자 B: 그냥 같이 써 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6개월 동안 같은 방을 쓰기는 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별로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그 친구는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냥 방만 같이 썼어요. 저는 대부분 같은 학교에서 온 중국 친구 방에서 자주 놀았어요.

김일성종합대의 생활환경은 김형직사범대와 차이를 보인다. 강남옥(2011)의 논의에 따르면 김형직사범대의 기숙사는 학교 외부에 존재하는 외국인 지정 숙소로서 1인 1실의 독립 공간이었고, 건물 안에 이발소와 독서실, 휴게실 등이 위치한 전문 숙소였다고 밝히고 있다. 매일 아침 통학 버스가 숙소로 왔으며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김일성종합대는 교내에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생활하기에는 더욱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김일성종합대의 조선어 연수 과정은 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며 매 수업마다 담당 교수들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한 강의당 학생 수는 15명 내외였는데, 김일성종합대에 30명의 학생이 두 개 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았다. 2012년의 경우 북경 지역 대학 3개와 북경 외 지역 3개로 총 6개 학교에서 30명의 학생이 공부했는데, 북경 지역 대학 학생들이 한 반, 북경 외 지역 학생들이 한 반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교실에는 컴퓨터와 프로젝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된 ‘조선말회화 3’ 수업 시간에 자주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2012년의 경우 ‘조선어문법’ 시간에 교수가 파워포인트(Power Point)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했다. 정해진 교재가 없는 경우 교수가 칠판에 판서를 하

거나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조선어문법’ 과목의 경우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교육 과정

수업 운영 방식은 1교시가 90분으로 구성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교시 내지 3교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2012년에 조선에 다녀온 학생의 학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 김일성종합대 조선어 연수 과정 학사 일정(2012년)

교시	월	화	수	목	금
1	조선어강독	조선어강독	조선어강독	조선어강독	조선말회화
2	조선말회화	조선어문법	조선말회화	글쓰기	조선어문법
3	조선지리				

수업의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선어 강독이 주당 4번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조선말회화가 3교시, 나머지 과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었다고 하였다. 전체 학사 일정은 5월 초에 1학기가 시작되어 8월 초에 시험과 함께 1학기가 종료되고 15일간의 여름 방학을 갖는다. 이후 8월 말에 다시 2학기가 시작되고 11월 초에 학사 일정이 종료된다고 하였다. 김일성종합대의 이러한 과목 구성과 학사 일정은 김형직사범대와 차이를 보이는데, 강남옥(2011)에서는 1교시가 45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점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김일성주체사상’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김일성종합대에서는 이러한 과목을 배우지 않았다. 또한 김형직사범대의 경우 ‘건강 태권도’, ‘조선의 전통문화’, ‘노래 가창 연습’ 등의 정규 교과 외 특강으로 문화 체험 강좌가 진행되었지만 김일성종합대에서는 2010년에 ‘노래 가창 연습’만이 한 번 진행되었다. 따라서 수업

시간의 차이와 필수 과목의 차이가 나타나며, 정규 교과 외 특별 강좌에서도 두 학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교재 및 교수법⁸

수업 시간에 사용한 교재는 2010년과 2012년도가 차이를 보인다. 먼저 2010년도에 학습자가 사용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조선말회화 1(류학생용), 박재호, 199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말회화 3(류학생용), 최승주, 200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문화어강독 1(류학생용), 김병무, 양옥주,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어문법(류학생용), 박재호, 양옥주, 200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그러나 2012년에 다녀온 학습자가 사용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조선말회화 2(류학생용), 최승주, 200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어강독 3(류학생용), 양옥주, 장혁철, 200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말회화(1)’은 유학생들이 1년 동안 예비반 단계에서 기초적인 조선말 회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교재로서 ‘인사’, ‘소개’, ‘시간’, ‘날씨’ 등의 주제와 기초적인 일상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말회화(3)’은 2학기에 배우는 교재로 ‘조선말회화(1)’ 3편 ‘듣기 연습’의

8 본 연구는 김일성종합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선어교육 과정의 운영 사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되는 교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교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의 후속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4절에서는 특정한 분석 기준에 의거한 교재 분석보다는 다양한 교재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통해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과 목차, 연도별 차이, 김형직사범대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교수법의 차이 등 일부만을 제시할 것이다.

대화문을 확장한 것이다.⁹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조선말회화(2)’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없는데, 제보자 B를 통해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였다. ‘조선말회화(2)’는 유학생들의 회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으며 전체 37과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평양을 떠나는 순간까지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와 장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밖에 문화 교육을 위하여 명절과 절기, 음식 등을 소개하는 단원도 포함되어 있다. 각과는 ‘본문 대화’와 자주 사용되는 표현과 문장을 모아 놓은 ‘참고’, 학습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의 대본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보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말회화(2)’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조선말회화 (2)의 차례¹⁰

순서	주제	순서	주제
제1과	첫 상봉	제20과	책방에서
제2과	아름다운 소행	제21과	청류관에서
제3과	우리 호실	제22과	아이들이 한 이야기
제4과	시원한 국수	제23과	손꼽아 기다리던 날
제5과	만수대를 찾아서	제24과	가정 방문
제6과	모란봉에서	제25과	국제통신센터에서
제7과	면담	제26과	치료
제8과	우리 인민의 첫 종합대학	제27과	생일을 맞으며
제9과	탁구 경기	제28과	학기말 시험
제10과	휴게실에서 들은 이야기	제29과	리발소에서
제11과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을 찾아서	제30과	빙상관
제12과	동숙생과 함께(1)	제31과	대성산유원지에서
제13과	동숙생과 함께(2)	제32과	묘향산 견학

9 각 교재의 구체적인 체제와 구성은 김인규(2012)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0 차례의 표기는 원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남한의 맞춤법과는 상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제14과	등교길에서	제33과	평양산원
제15과	교사에서	제34과	가을걷이
제16과	TV를 보면서	제35과	설명절
제17과	조선의 절기(1)	제36과	민족음식
제18과	조선의 절기(2)	제37과	평양을 떠나면서
제19과	백화점에서		

김일성종합대에서 사용되는 회화 교재는 ‘조선말회화(1), (2), (3)’의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교재는 초, 중, 고급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 학기 동안 세 권이 단계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 수준에 따라 수업 내용과 교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님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제보자 A에 의하면 2010년에는 1학기에는 ‘조선말회화(1)’을 배우고, 2학기 때 ‘조선말회화(3)’을 배웠다고 응답하였는데, 2012년의 경우 회화교재로 ‘조선말회화(2)’가 1, 2학기 모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1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습량이 많아서 수업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보하였다.

제보자 B: 회화 시간에 조선어회화(2)로 배웠는데 내용도 어렵고, 단어가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간 2학년 선배들은 쉬워서 수업 시간이 재미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조선에서는 반이 2개였는데, 배우는 내용이 모두 똑같아요. 선배들은 2학년이라서 이미 중국에서 다 배운 내용을 조선에서 또 배웠고, 저희는 중국에서 아직 못 배운 내용을 처음으로 배우는 거라서 어려웠어요.

‘조선어회화’ 과목의 교재뿐만 아니라 학습 과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2010년에 간 학생의 경우 ‘조선 역사’, ‘조선 민속’ 등의 과목을 배웠다고 했지만, 2012년 학생의 경우 ‘글쓰기’와 ‘조선 지리’ 과목을 배웠다고 응

답했다. 따라서 ‘조선말회화’나 ‘조선어강독’ 등은 필수과목이지만 역사, 민속, 지리 등의 과목은 선택 과목의 형식으로 지정되어 매년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수업 진행 방식은 모든 과목이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회화 수업의 경우에도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 등 의사소통식 교수법이 반영되지 않은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김형직사범대의 회화 수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옥(2011)에서 밝힌 김형직사범대의 회화 수업은 강독이나 기타 수업과 달리 교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유도하고 역할극을 집중적으로 시키며, 개별적인 발음 지도도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 교사에 대해 성격이 밝고,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조선어를 강의한 전문가라고 평가하였다(강남옥, 2011: 311). 그러나 김일성종합대는 모든 과목이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수업 진행 방식의 차이는 교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남옥(2012)에서는 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어교육 교재를 분석하여 김일성종합대는 문법과 단어를 통제하여 체계성을 강조한 반면, 김형직사범대는 원어민의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여 유창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였다(강남옥, 2012: 33~34).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교재 제작은 물론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강독과 회화 수업의 구체적인 진행 단계는 먼저 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② 숙제를 확인한 후에 ③ 오늘 배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④ 교사가 발음을 교정해 주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읽기가 끝난 후에는 ⑤ 새로 나온 어휘와 문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숙제로 ⑥ 본문을 외우는 것은 필수였다고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을 수업 시간에도 배운 내용을 계속해서 외우는 경우가 많았다. 글쓰기, 문법, 지리 등의 수업도 마찬가지로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재의 구성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교수의 대부분이 40대 이상

의 남자였으며 60대 이상도 있다고 하였다. 2012년의 경우 조선어강독 수업만 여자 교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에 익숙한 세대라서 실제 수업 시간은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인 수업식 강의가 이루어졌고, 학생들 사이에 상호작용이나 교류는 거의 없었다.

제보자 A: 수업 시간은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필기만 했어요. 한 명씩 읽고 틀린 발음을 고쳐 주고 한 명씩 외워 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친구와 함께 연습을 하거나 외운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만 수업을 해서 지루했어요.

제보자 B: 특별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본문을 외우고 칠판에 쓰고, 선생님 목소리만 듣고 따라 하고 외우는 수업이 대부분이었어요. 학생들끼리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고 혼자서 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학생들은 오후 1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와 자유 시간을 갖게 된다. 기숙사 1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식사를 한 후에 낮잠을 자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숙제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숙제는 ‘조선어강독’이나 ‘조선어회화’ 수업의 경우 본문을 외우는 숙제가 항상 나왔으며, 새로 나온 단어나 문법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도 항상 숙제였다. 이러한 수업과 과제를 통해 학기가 끝날 즈음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2012년 참가자의 인상적인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보자 B: 1학기 시험을 볼 때 조선어강독 과목은 2시간 동안 책에서 배운 단어 중에서 알고 있는 단어 1,000개를 쓰라는 시험이 나왔어요. 그때 1,000개를 다 쓰면 만점이에요. 그리고 회화 수업에서는 대화 외우기도 있었어요. 다른 시험은 거의 다 중국에서 보는 시험과 비슷해요.

5. 교외 활동 및 만족도

수업이 끝난 후 혹은 주말이면 중국 학생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010년의 경우 외출이나 교외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2012년에는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말이면 중국 대사관에 가서 간식을 먹거나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 우편을 보내는 경우 우편물을 가지고 대사관에 가면 중국 직원들이 중국에 갔을 때 국내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 생활비로 받은 250달러를 환전해서 기념품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중국 학생들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2주일에 한 번씩 평양 시내 유적지와 북한 지역을 관광하는 문화 체험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는 학교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김형직사범대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강남옥(2011)에 따르면 김형직사범대에서는 방과 후에 노래나 태권도 등의 특별 활동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김일성종합대는 방과 후 교내에서는 진행되는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없었으며 교외 관광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북한 관광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평양 시내 외에도 원산과 개성, 묘향산 등 북한 전역의 관광지와 문화 유적을 둘러보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숙사에 돌아와 잠을 자는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텔레비전 역시 북한의 채널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행과 교외 활동은 북한 생활에서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북한에서 지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제보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10년에 북한에 다녀온 제보자 A의 경우 전체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했으

며, 조선어 연수 과정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겼다. 반면에 제보자 B의 경우 중국에 돌아온 이후 북한의 억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남한에서 공부한 것만큼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지 못한 채 기숙사에서 공부만 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제보자 A: 조선에서 공부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매우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거라서 매우 재미있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만 조선에 다녀온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제보자 B: 다시 조선을 선택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조선에서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공부 내용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조선 말투가 맘에 안 들어요. 중국에 와서 고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여행도 많이 가고,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조선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요.

북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류 열풍으로 인해 남한의 문화에 대한 중국인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단순히 한국어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나 공연 관람, 쇼핑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을 병행하길 원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없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 인터넷은 물론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조차 볼 수 없는 답답한 북한 생활은 인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북한으로 가는 중

국 학생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김일성종합대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어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와 교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김일성종합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선어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강남옥(2011)에서 밝힌 또 다른 조선어교육 기관인 ‘김형직사범대’와의 운영 사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김일성종합대’와 ‘김형직사범대’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원: 매년 중국에서 60명의 학생들이 북한에 가며, 일반적으로 우수한 학생 30명이 김일성종합대로 간다.
2. 생활환경: 김일성종합대의 기숙사는 교내에 위치하고, 김형직사범대는 교외에 있는 외국인 교환학생 지정 숙소에서 생활한다.
3. 수업 및 평가: 김일성종합대는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과 지필 고사가 주를 이루지만 김형직사범대의 경우 회화 수업에서는 역할극을 포함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평가에서도 대화문 만들기, 토론하기 등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
4. 교과 운영 및 교육 시간: 김일성종합대는 1교시가 90분이지만, 김형직사범대는 45분이다. 김일성종합대는 방과 후에 진행되는 특별 활동이 거의 없지만 김형직사범대는 문화, 체육 활동이 존재한다. 또한 김형직사범대에는 필수 과목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김일성종합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5. 교재: 김일성종합대는 ‘조선말회화 (1), (2), (3)’과 ‘조선어강독’을 사용하고, 김형직사범대는 ‘조선어회화’와 ‘조선어강독’을 사용한다. 김일성종합대의

‘조선말회화’교재는 ‘조선어회화’에 비해 학습 분량이 많고, 문법과 어휘 학습 중심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교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은 차이의 변인이 학교인지, 시기인지에 대한 것이다. 강남욱(2011)에서 연구한 김형직사범대의 운영 사례는 2002년에 연수를 받은 학습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는 2010년과 2012년에 김일성종합대를 다녀온 제보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1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간의 차이 외에도 학습 시기의 차이가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동일한 시기에 두 학교에서 공부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조선어교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김일성종합대의 조선어교육 연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밝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어교육 현황을 재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조선어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지평이 넓어지고, 통일 이후의 언어 교육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4. 7. 31. 투고되었으며, 2014. 8. 6. 심사가 시작되어 2014. 8.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남옥(2011),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연구—
김형직사범대학 출신의 제보자 면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40집,
국어교육학회, pp. 295-326.
- _____(2012),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 비교 연구—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초급 회화 교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1-38.
- 김영미·황정희(2012), 「EBS English 방과 후 영어 교실의 운영 사례 분석」, 『초등영어교육』
18권 2호,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pp. 85-110.
- 김우형(2009), 「단기 영어몰입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9권 1호,
대한영어영문학회, pp. 225-244.
- 김인규(2012), 「조선의 '외국어로서 조선어교육' 연구—류학생 회화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84-306.
- 김중섭(2000), 「남북한 한국어 교육 비교연구」, 『어문연구』 제28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77-99.
- 김중섭·조현용(1996), 「북한의 언어정책과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제13호,
이중언어학회, pp. 115-136.
- _____(1998), 「북한의 한국어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13-133.
- 박재의·강현석(2009),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연구학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8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pp. 27-43.
- 이관식(2005), 「북한의 한국어교육 회화 교재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16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95-217.
- _____(2007), 「북한의 한국어 문화(민속)교재 분석」, 『어문연구』 35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421-447.
- 최호철(1996), 「북한어학에 대한 남한의 연구」, 『한국어학』 제3호, 한국어학회, pp. 43-91.

김일성종합대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 연구

김가람

본 연구의 목적은 김일성종합대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선어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재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재 분석과 함께 2명의 중국인 제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김일성종합대의 조선어 연수 과정은 또 다른 조선어 교육기관인 김형직사범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구성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교육과정과 교재, 교수법에서도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정부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방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이를 통해 점점 더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조선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다. 또한 만족도 평가에서 장학금과 희소성은 여전히 높은 만족도의 원인이지만, 북한식 억양과 말투, 자유롭지 못한 북한 생활은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핵심어 조선어교육, 김일성종합대, 조선어 교육과정, 조선어교수법, 조선어 학습 교재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Korean education in Kim Il-sung University

Kim Garam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program is managed at Kim Il-sung University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both in-depth interviews with two Chinese informants and textbook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Through this method, various aspects and organizations of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Kim Il-sung University have been reconstructed. Firstly,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aspects between Kim Il-sung University and Kim Hyong-jik Pedagogical University when it comes to the student, their living environment, curriculum, textbooks and teaching methods. Secondly, one should understand that it is the Chinese government who has started up an open-door policy the program of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North Korea, in order to attract outstanding students. Lastly, participants in the study have expressed satisfaction with economic support and rarity. Contrastingly however, some were not satisfied with the North Korean pronunciation, accent and restrained lifestyle.

KEYWORDS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North Korea, Kim Il-sung University, Kim Il-sung University KFL curriculum, Kim Il-sung University teaching method, Kim Il-sung University textbook